

# 도시-농촌 거주에 따른 노후 생활특성의 차이

## Impacts of Urban-Rural Residence on Later Life

이 인 수\*  
Lee, In-Soo

###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analyze impacts of urban vs rural residence on later life. In this study, 329 Koreans aged 60 or more were interviewed for their current sociodemographic status and daily life styles. The results are drawn as follows: 1. There is no regional impact on birth order; rate of those born as the first child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over regions. 2. For the household composition, the rate of three generation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3. More than 85% of the subjects lived in owned homes in rural areas, while 77% did in urban areas. 4. More than 89% of the subjects lived in single-structured homes in rural areas, while only 45% did in urban areas.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planning public housing for the aged, more social spaces accommodating grandchildren and ownership units need to be allocated for rural facilitie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daily activity schedules need to be differentiated so that rural residents have meals and houseworks earlier than urban residents.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도 이제 65세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에 이르고 60세이상은 10%를 넘어선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장인협, 최성재, 1996). UN의 기준으로는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 직장은 55세전후를 정년퇴직으로 정하므로 50대 후반부터 60세초반 연령층 대다수가 사회적 역할과 동료와의 교류를 상실한 사회적노화(Atchley, 1987)에 직면한다.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는 고령화사회를 가속화하고 급속한 산업화로인한 조기퇴직은 중년기 사람들의 사회적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이러한 두가지 현상이 빚어내는 사회적 현상중 주거분야의 민감한 과제는 노인촌락, 노인주택, 양로시설등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증가다.

신체적, 경제적으로는 아직 활동능력이 큰 반면

사회적으로는 대중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노인 계층” 경우, 자녀와의 동거나 노부부만의 생활보다는 노인들의 동질적인 집합주거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50%이상을 차지하는데(이인수, 1996) 이러한 성향은 ①독립적인 생활이 가져오는 세대 간의 편리함에 대한 인식과 ②독립적인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원영희, 1995), 그리고 ③노인전용주거시설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인수, 1996)에서 비롯된다.

한국에 노인전용 주거시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초 노인복지법규상 유료노인시설이 명문화되면서 부터다. 생활보호대상자및 노약자 보호시설외에, 노인의 자발적 선택에의해 입주하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은 1998년말 현재 전국에 10개이상 존재하는데 앞으로도 노인전용 주거시설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노인관련 학술단체 연합회, 1999; 현외성외, 1998).

노인전용 주거시설 경영의 難題는 크게 ①의료보호와 ②일상생활관리로 나눌수 있으며 일상생활 관리의 큰 문제중 하나는 입주자들의 사회적 배경 차이에서 오는 상호 이질감의 해소다

\* 평이사,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Pynoos, 1993; 강수지, 1996). 입주자들의 사회적 배경에는 과거의 직업,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 등이 있는데 노인이 오랫동안 살아온 거주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정서와 생활습관이야말로 입주자간 융화감, 혹은 위화감을 유발시키는 민감한 과제다.

노인이 도시에서 살아왔느냐 아니면 농촌에서 살아왔느냐는 노인의 직업이 농업이나 아니냐를 가름하는 외에도 소득, 가족관계, 종교, 교육, 생활습관등의 차이를 낳는 원천적 요인이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조사에 의하면 60세이상 노인중 도시:농촌 거주 비율은 2:1인바, 노인의 특성중 도시-농촌의 주거지역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배경차이는 그 어느 요인보다도 더욱 대규모(massive)이며 토착화된(deep-rooted) 특성을 유발한다고 할것이다.

농촌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노인들은 힘든 농사일과 농작물의 보존, 열악한 편의시설, 도시보다 넓지만 견고하지 못한 주택의 관리, 유해 동물의 피해로부터의 부담을 극복하는 생존과정을 겪는다. 반면 도시노인 경우 문화혜택수준은 높지만 환경오염과 자연녹지공간부족, 교통사고, 범죄등의 부담을 겪는 특성을 지닌다. 농촌노인들은 도시노인에 비해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가옥의 연구(1990)에 의하면 도시 단독거주노인의 약 15%가 걸어서 3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자녀가 거주하는 반면 농촌노인은 이러한 비율이 7.4%에 불과하였다. 한편 농촌노인의 43%가 차타고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자녀가 살고 있으며, 1시간 미만의 거리에 사는 경우는 17% 정도에 불과하다. 연락빈도도 도시노인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노인은 거주해온 지역에 따라 생활환경이나 자녀와의 교류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생활습관, 정서적 특성차를 초래할 개연성을 지닌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배경을 도시-농촌간 주거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은 노인의 정서적 특성과 생활습관 차이를 추정하여 앞으로 대량보급될 노인전용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차등화된 지침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60세 이상 한국 노인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을 도시-농촌간 주거지역 별로 분석하여 앞으로 노인전용 주거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목적과 활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노인의 동거세대수, 출생순위, 자녀수등 가족관련 배경을 주거지역별로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은 노인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온 사람들의 계층, 그리고 가족내 지위등이 도시-농촌별로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활용될 것이다.

2. 두 번째 목적은 노인의 주택소유권, 주택구조, 동거가족수등 주거조건을 주거지역별로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은 소유된 단독주택에서 살아온 노인의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 추정함으로써, 노인전용 주거시설 설립시 도시-농촌 지역별로 차등화된 분양단위 비율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3. 세 번째 목적은 노인들의 취침, 기상, 식사시간등 생활습관을 주거지역별로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은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일상생활 프로그램 구상에 있어 도시-농촌 지역별로 차등화된 시간계획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1997년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천, 천안, 대전, 수원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 192명과 경기 및 충남지역 군이나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남녀 노인 137명 등 총 3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노인은 일개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부 3, 4학년 학생의 집 주변에서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복지시설 거주자가 아니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들에 의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노인중 도시노인은 남자비율이 40.6%, 농촌경우 42.3%였으며(표 1) 평균연령은 도시노인이 71.5세, 농촌이 70.1세로 도시지역 노인의 연령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배우자 비율은 두 집단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바, 도시노인 경우 28.4%만이 배우자가 있는 반면 농촌경우 65.3%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에 비해 농촌노인들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도 지역간 유의한 편차가 나타나는데 무학, 국민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비율의 차이는 매우 적으나 농촌노인 경우 21%이상이 일제하의

전통교육인 서당을 다녔으며 도시노인 경우 19% 이상이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임이 나타난다.

종교에 있어서는 도시 경우 천주교신자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구당 소득은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도시노인 경우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2,692만원인데 비해 농촌경우 2,066만원에 불과했다. 조사대상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해 볼 때 도시노인은 농촌노인에 비해 ①연령이 다소 높고, ②독신노인 비율이 높고, ③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조사항목 및 분석과정

본 연구의 조사는 객관식 문항에 의한 量的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사항목은 ① 성별, 연령, 교육, 혼인상태, 소득 등 일반적인 사회요인, ②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배우자, 자녀, 손자녀, 친인척등), ③ 동거유형(노인단독, 자녀와의 동거등), ④ 주택의 구조(단독,공동주택), 그리고 ⑤주택 소유여부(본인 및 배우자나 자녀소유등 가족소유 自家,전/월세),⑥형제자매중 조사대상 노인의 출생순위, ⑦노인이 직접 출산하여 양육한 총 자녀수, 그리고 ⑧최초 자녀 출산후부터 최종 자녀 출산시기까지의 기간(가족 확대기)등 가족사회학적 특성과 기상, 취침, 식사, 흡연, 음주등 생활습관등이다.

본 연구에 있어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노인: 노인이란 조사 시기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사람을 지칭한다.
- 2) 동거가족: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가족을 말한다.
- 3) 노인가구: 노인가구라 함은 만 60세이상 노인이 조사 시기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거주해 오고 있는 가구(household)를 말한다. ①노인단독 가구는 노인들만 단독으로 거주하는 가구로서, 독신 노인 한명, 혹은 조사대상 노인과 그 배우자 두 사람 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②2세대 가구란 독신 노인이나 노인 부부, 그리고 그 자녀 세대 등 2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로서 한국보건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도시(N=192)	농촌 (N=137)
남자비율(%)	40.6	42.3
연령(년)		
평균	71.52	70.09
표준편차	7.17	5.79
t-test score = 1.92*		
배우자有(%)	28.4	65.3
학력(중퇴포함,%)		
무학	40.9	40.2
서당	8.2	21.0
국민학교	21.8	21.0
중.고등학교	10.0	7.8
전문대이상	19.1	10.0
Chi-square=12.25** d.f.=4		
종교(%)		
불교	24.5	28.0
기독교	24.5	21.9
천주교	20.9	11.9
기타	0.0	0.0
없음	29.0	33.8
가구당 연간 收入(백만원)		
평균	26.92	20.55
표준편차	14.73	28.37
t-test score = 3.29**		

\*:P<0.05    \*\*:P<0.01

회연구원(1995)의 수식에 따라 “노인단독 + 노인의 자녀 동거”로 표시된다. ③3세대가구란 3세대가 동거하는 가구로서 위에 정의된 2세대에 손자녀가 포함되어 “노인단독 + 노인의 자녀 + 동거자녀가 출산한 노인의 손자녀”로 표시된다.

4) 거주지역:본 연구에서 거주지역이란 임시거주지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살아온 도시, 혹은 농촌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거주 노인이란 서울, 인천, 수원, 천안, 대전에 2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온 노인을 의미하며 농촌거주노인이란 행정구역상 경기도 충청의 군, 혹은 면단위 이하(예:천안시 병점면)에서 20년간 거주해온 노인을 의미한다.

5) 취침과 기상:취침은 저녁식사이후 잠자리(이불,벽계)를 준비하고 숙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기상이란 아침식사 이전에 잠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취침시간은 조사시점 전날에 취침한 시간을 의미하며 기상시간은 조사 당일 시간을 의미한다.

각 항목별로 조사된 데이터는 개인 컴퓨터용 SPSS에 입력되었으며 조사항목의 비율, 득수, 평균, 표준편차 등의 통계량이 분석되고 주거요인의 주요개념인 소유된 단독주택(owned single-structred unit)에 사는지의 여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로지스틱 다중회귀 분석이 실시 되었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가족관계

본 연구의 조사결과 노인단독가구 비율은 지역간 큰 차이가 없으나 농촌거주 노인들은 도시에 비해 2세대 가구비율이 매우 낮고 노인+자녀+손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이 고찰되고 있는데( $p < 0.01$ ), 이러한 도시-농촌간 세대구성 차이는 ①젊은층의 탈농현상, 그리고 ②핵가족화 진행의 도시-농촌간 차이로 설명된다. (표 2). 결혼전 젊은 자녀의 경우, 도시에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여 2세대 가구를 이루는 경향이 높은 반면 농촌에서는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

는 경향이 크다. 반면 결혼후 자녀가 생긴 성인 자녀의 경우, 노부모와 서로의 사생활 편의를 위해 분가해 사는 핵가족화 현상은 도시가 심하지만 농촌은 토지상속을 전제로 노부모와의 공동영농을 하는 경향이 크기에 3세대 가구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출생순위 분포는 도시-농촌간 차이를 보이지

표 2. 가족관계의 지역간 비교

항목	도시(N=192)	농촌(N=137)
세대수(%)		
1세대	53.6	54.0
2세대	19.8	8.8
3세대이상	26.6	37.2
계	100.2	100.0
Chi-square=9.34** D.F.=2		
출생순위(%)		
1순위	30.2	32.1
2순위	24.5	25.5
3순위	21.9	21.2
4순위이상	23.4	21.2
계	100.0	100.1
Chi-square=0.31 D.F.=3		
자녀수(명)		
평균	4.09	4.71
표준편차	2.01	1.78
t-test score =2.06*		
가족확대기(년)		
평균	11.02	13.03
표준편차	6.76	6.75
t-test score =1.79		
男兒比		
평균	0.51	0.54
표준편차	0.23	0.22
t-test score =1.00		
손자녀출생시기(연령)		
평균	48.69	49.65
표준편차	13.98	9.43
t-test score =0.71		

\*:P<0.05 \*\*:P<0.01

않는다. 만이로 자라난 노인 비율은 도시-농촌간 30-32%정도의 분포를 보이며 그 이후 순위비율도 20-25%정도로 매우 미미한 차이만을 보이기에, 출생한 순위에 따라 도시-농촌 거주지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2. 주거조건

도시-농촌간 전체노인의 주거조건을 비교해볼때 농촌에 거주해온 노인은 도시에 비해 ①노인 자신, 배우자 혹은 자녀소유 집(自家)에 사는 비율과 ②단독주택에 사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 도시노인의 약 77%, 그리고 농촌경우 85%이상인 자가에 거주하며,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도시-농촌이 각각 44.8%와 89.1%의 큰 격차를 보인다. 소유권과 주택구조의 지역간 차이는 일반적으로 토지및 건물비용의 도시-농촌간 현저한 차이에 기인하는바 도시에 비해 토지가격과 건축비용이 저렴한 농촌 경우 소유된 단독주택에서 사는 노인 비율이 높은 것은 매우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가구당 평균 방의 갯수도 도시-농촌간 2.34 - 2.96의 적은 범위를 보여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가구당 평균 동거가족수 역시 3.24 - 3.38의 적은 범위를 보여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구간별로 구분해 비교해 볼때도 주거조건 의 추이에 있어 도시-농촌간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주택 소유권을 고찰해볼때, 도시에 거주해온 60-69세 노인중 65.9%, 70-79세의 84.6%, 80세이상의 90.1%가 자가에 거주하면서 연령구간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농촌경우 60대 노인의 91.4%, 70대의 88.6%, 80대의 100.0%가 자가에 거주하여 연령구간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내에서의 연령구간별 차이는 없으나 특정 연령구간대 자가비율의 지역간 차이는 발견되는데, 60대 노인의 자가거주 비율에 있어 도시는 65.9%인 반면 농촌은 91.4%로서, 도시에 비해 농촌은 60대 초로연령 노인부터 대부분 자신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소유한 집에 살고있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주택구조를 고찰해볼때, 도시에 거주해온 60-69세 노인중 58.6%, 70-79세의 23.5%, 80세이상의

표 3. 주거조건에 따른 지역간 비교

항목	도시(N=192)	농촌 (N=137)
소유권(%)		
자신/배우자	77.1	85.4
자녀소유	4.2	5.1
전월세/기타	18.7	9.5
계	100.0	100.0
Chi-square=5.45 D.F.=2		
주택형태(%)		
단독가구	44.8	89.1
다세대가구	18.2	4.4
아파트	30.2	2.2
기타	6.8	4.4
계	100.0	100.1
Chi-square=71.72** D.F.=3		
방갯수		
평균	2.84	2.96
표준편차	1.68	1.46
t-test score = 0.63		
동거가족수		
평균	3.24	3.38
표준편차	5.69	5.20
t-test score = 0.23		
연령대별 自家비율(%) <sup>1)</sup>		
60-69	65.9	91.4
70-79	84.6	88.6
80세이상	90.1	100.0
Chi-square	4.34	21.43**
d.f.	2	2
연령대별 단독주택비율(%) <sup>2)</sup>		
60-69	58.6	84.1
70-79	23.5	92.2
80세이상	0.0	75.5
Chi-square	11.53**	3.06
d.f.	2	2

\*:P<0.05 \*\*:P<0.01

1) 2) 연령구간별 차이를 지역마다 따로 비교함

0.0%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기에, 높은 연령일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작아져 연령구간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0.01). 하지만 농촌 경우 모든

연령구간에 있어 75-92%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편차를 보이며 연령구간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간 두드러진 차이는 농촌의 경우 모든 연령구간에서 75%이상 높은 비율 노인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도시경우 70대부터는 30%이하의 매우 적은 비율만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에 자녀와 결합하는 노인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정되는바, 도시는 자신의 집을 상속후 처분한 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자녀와 결합하는 노인이 많은 반면, 농촌의 경우 영농생활을 위해 단독주택을 그대로 소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3. 생활습관

농촌거주 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훨씬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집단임이 나타나고 있다(표 4). 본 연구의 조사시기가 영농이 종료된 11월 입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중 70%이상 이 오전 7시 이전에 기상하고, 85%이상 이 9시 이전에 아침식사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도시거주 노인 경우 약 50%가 7시 이전에 기상하고 72% 정도가 9시 이전에 아침식사를 마치므로, 기상시간과 아침식사에 있어서는 농촌노인이 도시노인 보다 이른 시간에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점심식사를 오후 1시 이전에 하는 비율은 농촌이 다소 높고 저녁식사를 9시 이후에 하는 비율은 도시가 다소 높은 특성을 지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도시 노인은 8%이상 이 9시 이후 저녁식사를 하는 반면 농촌노인은 3%정도에 그쳐, 매우 늦은 시간에 식사하는 노인비율은 도시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취침시간 분포에 있어서도 지역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도시노인은 43.7%만이 11시 이전에 취침하고 대다수가 11시 이후 늦은 시각에 취침하는 반면 농촌경우 대다수인 약 63%정도가 11시 이전에 취침함으로써 도시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취침하는 습성을 보인다( $p < 0.01$ ).

흡연과 음주를 고찰해 볼 때 노인 1인당 평균 하루에 담배 3-4개비, 술은 맥주로 환산하여 0.3-0.5병정도를 마시는 바, 평균값에 있어 지역간

표 4. 일상생활 습관의 지역간 비교

항목	도시(N=192)	농촌(N=137)
기상시간(%)		
05-07	51.0	71.5
07-09	25.5	21.2
09-11	13.0	4.4
11시이후	10.4	2.9
Chi-square=18.17** D.F.=3		
아침식사시간(%)		
05-07	26.0	20.4
07-09	46.4	65.0
09-11	19.3	11.7
11시이후	8.3	2.9
Chi-square=12.89** D.F.=3		
점심식사시간(%)		
오후 1시이전	50.5	53.3
1-3	46.9	44.5
3시이후	2.6	2.2
Chi-square=0.271 D.F.=2		
저녁식사시간(%)		
오후 5시이전	12.5	13.9
5 - 7시	31.5	30.7
7 - 9	47.9	51.8
9시이후	8.1	3.6
Chi-square=1.22 D.F.=3		
취침시간(%)		
오후 9시이전	8.3	19.0
9-11시	34.9	43.8
11-1시	24.0	11.7
새벽 1시이후	32.3	25.5
Chi-square=16.82** D.F.=3		
1일 흡연량(개비)		
평균	3.02	3.88
표준편차	7.12	7.05
t-test score = 1.04		
1일 음주량(맥주/병)		
평균	0.46	0.38
표준편차	1.32	0.79
t-test score = 0.62		
1일 茶 음용량(잔)		
평균	0.36	0.18
표준편차	0.65	0.59
t-test score = 2.58**		

\*:P<0.05 \*\*:P<0.01

다소 차이는 있지만 표준편차가 매우 크므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커피를 비롯한 茶의 飲用에 있어서는 도시노인은 1인당 하루 평균 0.36잔의 차를 마시지만 농촌은 0.18잔에 그치고 표준편차도 매우 적은 경향을 보이기에, 도시거주 노인은 농촌노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를 마시고 있음이 나타난다( $p<0.01$ ).

#### 4.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유된 단독주택에서의 거주여부와 설명인자들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도시-농촌 지역별로 각각 실시되었다(표 5). 종속변수인 “소유된 단독주택(owned single-structured unit)에서의 거주”는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소유의 단독주택에서 살 경우 1로 처리되고 그밖의 경우(예:전월세 단독주택, 소유된 아파트등)는 2로 처리되어 2분변수화 되었다. 설명인자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정규학교에 재학한 年數), 소득, 배우자 유무, 동거가족수, 형제자매중 출생순위, 동거세대수가 사용되었다.

도시노인의 경우 소유된 단독주택 거주와 유의한  $\beta$ 계수를 갖는 설명인자는 나타나지 않고있다. 반면 농촌경우, 교육수준과 출생순위는 종속변수와 전형적인 통계수준에서의 유의한  $\beta$ 계수 관계를 보이며( $p<0.05$ ) 배우자 유무와 동거세대수는 유의수준 0.1내에서 다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과 출생순위와 종속변수와의 계수는 각각 0.1, 0.34인바, 농촌에 거주해온 노인은 교육수준이 높고 만이가 아닌 노인일수록 소유된 단독주택에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농촌의 특성상 만이가 아닌 사람은 토지상속을 전제로한 노부모 부양과 가족영농 책임이 적기에, 고등교육을 받은 뒤 농업이외의 생업(예:상업, 인근 읍에서의 고용직등)에 종사하며 전형적 농가 거주외의 주생활(예: 읍내 상가거주)을 할 가능성이 다소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고찰해 볼 때, 소유된 단독주택 거주에 대한 설명인자의 영향력은 도시노인에 있어서는 아무런 함수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농촌노인 경우 모형적합도(goodness-of-fit)의 chi자승 값이 낮아 로지스틱 모형의 설명능력이

표 5. 소유된 단독주택에 대한 설명인자들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소유된 단독주택 거주 여부 거주할 경우=1, 기타경우=2)

	도시	농촌
설명인자	$\beta(P)$	$\beta(P)$
성별(남=1,여=2)	-0.08(0.11)	0.09(0.76)
연령	0.06(0.21)	0.03(0.34)
교육수준(재학년)	0.09(0.12)	0.10(0.03)*
소득	0.00(0.19)	0.00(0.12)
배우자(有=1,無=2)	0.85(0.21)	-0.75(0.09)
동거가족수	-0.02(0.64)	0.02(0.74)
출생순위	-0.26(0.24)	0.34(0.05)*
동거세대수	0.42(0.28)	0.59(0.06)
Constant	-2.58(0.49)	-5.55(0.04)*
Goodness-of-fit Chi-square	4.99	4.71
d.f.	8	8
Significance	0.76	0.78

\*:P<0.05 \*\*:P<0.01

적합하며, 교육수준과 출생순위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오랜 기간동안의 도시-농촌거주로 인해 형성된 노후생활 특성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한 경험적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1) 젊은 연령층의 탈농현상과 도시지역 핵가족화 진행으로 인해, 농촌거주 노인들은 2세대 가구 비율이 낮고 3세대 비율이 도시보다 현저히 높다.
- 2) 출생순위 분포는 도시-농촌간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만이나 아니나가 도시-농촌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 3) 농촌거주 노인은 자신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소유 단독주택에 사는 비율이 도시보다 높다.
- 4) 농촌은 도시노인보다 더욱 이른 시기인 60대 초 연령부터 대부분 자가에 살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 5) 도시는 높은 연령일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

이 작아지면서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농촌경우 주택구조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6) 농촌거주 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취침, 기상, 식사시간에 있어 훨씬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

7)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있어 도시경우는 아무런 유의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농촌경우 교육수준과 출생순위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계수 관계를 보이기에, 교육수준이 높고 만이가 아닌 노인일수록 소유된 단독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 전용 주거시설 경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농촌지역에 설립될 노인거주시설 입주자는 입주전 손자녀와 동거한 3세대가구 노인비율이 높을 것을 감안해, 방문자 전용 사교공간구성에 있어 아동전용 공간(예:아동놀이실, 휴게실등)을 확보하는 방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노인거주시설 입주자중 도시-농촌 출신지역 별로 출생순위의 차이는 보이지 않으므로, 지역에 따라 입주노인의 가족내 위상의 차등화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예:리더쉽 향상 프로그램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3) 농촌거주 노인은 소유된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농촌지역에 설립되는 시설에는 소유권인정 분양 주거단위의 비율을 도시지역보다 높이는 방침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연령대별로 차등화된 분양단위 배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4) 입주자 활동프로그램 구상에 있어 농촌출신 노인의 기상, 취침, 식사시간은 도시노인보다

1시간 정도 이른 시간대를 고려하는 등 지역간 확연한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5) 도시지역 시설은 茶菓室(tearoom)등 선진국 도시형 노인거주시설에 보편화된 실내 문화공간(이인수, 1996)을 더욱 크게 배정하며, 농촌지역 시설은 정원과 텃밭을 더욱 크게 배정하는등 활동공간 배정에 있어 도시는 실내공간을 농촌은 실외공간을 강조하는 차등화된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수지(1996). 「실버시대의 실버사업」 동인사
2. 노인관련 학술단체연합회(1999). 서울국제노년학대회 Poster 발표 자료집.
3. 원영희(1995). 동.별거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한국노년학회지 15(2), 97-116.
4. 이가옥 외(1990).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원.
5. 이인수(1996). 장기보호시설의 개발에 관한 연구 (1). 한국노년학회지 16(1), 39-50.
6. 이인수(1996). 장기보호시설의 개발에 관한 연구 (2). 한국노년학회지 16(2), 102-119.
7. 장인협, 최성재(199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9. 현외성 외(1998).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예풍출판사.
10. Atchley, R.(1987). Social Forces in Later Life. Wadsworth Publishing Co.CA,U.S.A.
11. Pynoos, J. and Regnier, V.(1993). Housing the Aged, Elsevier Press, London.

(接受 : 1999. 8. 9)